

도내 주요 인사들 사전투표 나서

김관영 도지사·서거석 교육감·국주영은 자치도의회 의장·우범기 전주시장 등
김윤덕·신원식·한병도·강성희·신재용·전권희 등 도내 후보자들도 한표 행사

지난 5~6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치러진 가운데 전북의 주요 인사들이 첫날부터 사전투표를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북자치도청에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북자치도교육청,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 서신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전투표를 내기 먼저 참여함으로써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분투표에도 많은 도민들이 투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도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만큼 학생들이 올바르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이 하는 투

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도내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사전투표에 동참했다.
전주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으며,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전주시

동서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도 평화2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또 익산읍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도 전북자치도청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전주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서신동주민센터에서, 익산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와 진보당 전권희 후보도 익산시 신동 이리북일초등학교 강당과 익산시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자신의 한표를 행사했다.

/특별취재반



전북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왼쪽)이 전주에서 새로운미래 신원식 전주갑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전주·전북발전 견인해야”

새미래 신원식 후보, 사전투표 마치고 시민에 지지 호소
신경민 전 의원 지원유세... “전주 발전 싹 틔울 씨감자”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전주갑)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부인과 함께 평화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지역상가와 대자 인병원 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이번 선거는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과 기존 불량후보를 심판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것이 검증된 신원식을 국회로 보내 전주와 전북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주변 지역상가를 돌며 “새미래 전주에 삼성그룹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대자인병원 사거리 신 후보 유세 현장에 전북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이 지원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새미래 깬바 리대회를 통해 글로벌 새미래로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 너무 아쉬웠다”고 전제한 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할 공동 조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고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 것은 불량감자에서 싹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또 “신원식 후보처럼 공직과 대기업 경험이 있는 건강한 씨감자가 전주 발전의 싹을 틔울 수 있다”며 “전주 발전을 위해 신원식 후보에게 전주시민의 소중한 한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삼성중공업 이사, 전북도 정부부지사 등을 지낸 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삼성투자 유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청년 벤처기업인 육성 △한옥마을 르네상스 △세계 불고기마을 축제 △시니어마트삼 △복합타워 유치 등이 있다.
/특별취재반



①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고 있다. ②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③서거석(오른쪽) 교육감과 배우자 유경수씨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고 있다. ④우범기(오른쪽) 전주시장과 배우자 주은경씨가 전주 서신동 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고 있다.

“포트홀 현상 많아... 도로 보수 나서달라”

민주 정동영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병)는 “전주시내 도로 곳곳이 패이는 포트홀 현상이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시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관계 당국은 즉시 도로 보수에 나서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후보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유세를 다니면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실제 포트홀이 여러군데서 목격된다”며 “최근 기후 때문이 빚어진 현상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고위험에 직면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포트홀은 도로 표면에서 발생한 구멍이나 움푹 패인 부분을 의미한다.



포트홀이 생기는 원인은 아스팔트가 노후되고 기온이 들쭉날쭉하면서 눈·비가 자주 내릴 때 자동차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시의 경우 올들어 비가 많이 내려 지난 1월부터 두 달 새 2,285곳의 포트홀 신고가 접수돼 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는 “보수재료 가격이 폭등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안다”며 “해빙기인 만큼 적기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농촌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 만들 것”

민주 한병도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후보(익산을)가 어르신·농촌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제까지 익산시를 지역구에 새로 편입된 응포·성당·용안·용동·망성면을 자주 찾았다”라면서, “이곳 용안면에서 공약 발표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라 아쉬움을 토로하고, “농촌 쇠퇴, 농가 빈곤도 가속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후보는 “어르신들이 더 존경받고



대접받는 대한민국, 농촌에서도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겠다”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경로당 방문 주치의 사업 추진 등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1인 어르신 가구 돌봄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 환경 정비사업 추진 △영농후 폐자재 거점 배출시설장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삼승 침수 구역 배수장 증설 및 하천 정비 보강 등도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자치도, 내달 31일까지 도민·공무원 테마제안 공모

전북특별자치도가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공무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5월 31일까지 테마제안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테마제안 공모는 도민·공무원 공동, 도민 대상, 공무원 대상 등 대상별 각각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는 공모주제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전북소통대로를 통해 주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접수된 제안은 공모제안심사위원회가 실현가능성·창의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예비심사(서면)와 본심사(발표)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도는 총 14명을 선정(도민 6, 공무원 8)해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최고 200만원까지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는 ‘전북소통대로’(https://policy.jb.go.kr)를 통하거나 우편·방문 등으로도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2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